

第294回國會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會議錄 第 15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11月29日(月)

場 所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 나. 영화발전기금
 - 다. 지역신문발전기금
 - 라. 언론진흥기금
 - 마. 관광진흥개발기금
 - 바. 국민체육진흥기금
 - 사. 문화재보호기금
 - 아. 방송통신발전기금
3.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大韓民國藝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예술인 복지법안(계속)
39. 예술인복지법안(계속)
4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계속)

審査된案件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5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 나. 영화발전기금
 - 다. 지역신문발전기금
 - 라. 언론진흥기금
 - 마. 관광진흥개발기금

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 문화재보호기금	
아. 방송통신발전기금	
3.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5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서갑원 · 조정태 · 조배숙 · 양승조 · 박영선 · 김성수 · 박은수 · 강기정 · 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8553)	23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 · 이경재 · 장제원 · 유성엽 · 한선교 · 박대해 · 박민식 · 김소남 · 원희목 · 이인기 · 박영아 의원 발의)	23
1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강창일 · 박기춘 · 신낙균 · 김부겸 · 안규백 · 서갑원 · 전병헌 · 김재균 · 송민순 · 최문순 · 최철국 · 이용경 · 장세환 · 김성곤 · 이용섭 · 최종원 · 문학진 · 조영택 · 이종걸 의원 발의)	23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 · 노영민 · 최철국 · 강창일 · 박주선 · 박은수 · 주승용 · 강기정 · 전병헌 · 송민순 의원 발의)	23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 · 김낙성 · 김용구 · 노영민 · 류근찬 · 박상돈 · 이명수 · 이상민 · 이용경 · 이재선 · 이진삼 · 임영호 · 조영택 의원 발의)	23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김옥이 · 김을동 · 박민식 · 박보환 · 박상은 · 박순자 · 서병수 · 신낙균 · 유기준 · 이경재 · 이성현 · 이윤성 · 이주영 · 이한성 · 정수성 · 정옥임 · 조진래 · 차명진 의원 발의)	23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안규백 · 강창일 · 이계진 · 김재윤 · 강기갑 · 신건 · 최규성 · 이사철 · 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929)	23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최문순 · 강기갑 · 강기정 · 김부겸 · 김재윤 · 김진애 · 문학진 · 박은수 · 신학용 · 양승조 · 원혜영 · 이미경 · 이성남 · 이용섭 · 장세환 · 정동영 · 조승수 · 조영택 · 최영희 · 홍희덕 의원 발의)	23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강창일 · 박기춘 · 신낙균 · 김부겸 · 안규백 · 서갑원 · 전병헌 · 김재균 · 송민순 · 최문순 · 박은수 · 최철국 · 이용경 · 장세환 · 김성곤 · 이용섭 · 최종원 · 문학진 · 조영택 · 이종걸 의원 발의)	23
17.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6738)	24
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 · 송영선 · 김우남 · 이명수 · 이한성 · 손범규 · 유성엽 · 이해봉 · 김성태 · 신영수 · 조영택 · 이주영 · 진성호 · 황우여 · 홍희덕 의원 발의)	24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419)	24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596)	24
2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2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 · 이한성 · 정수성 · 유성엽 · 김태원 · 이인기 · 정영희 · 이주영 · 신영수 · 이계진 · 권영세 · 이경재 · 권선택 의원 발의)	24
2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강성중 · 강운태 · 김영록 · 김효석 · 우윤근 · 조정태 · 전혜숙 · 최철국 · 홍영표 의원 발의)	24
26.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 · 최영희 · 이한성 · 정수성 · 손범규	

· 김태원 · 이인기 · 이계진 · 신영수 · 권영세 · 이경재 의원 발의)	24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김무성 · 이한성 · 황우여 · 이해봉 · 안형환 · 김금래 · 안홍준 · 김소남 · 이인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2)	24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이명규 · 김영선 · 이인기 · 최규식 · 김옥이 · 이경재 · 홍사덕 · 안형환 · 이학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9547)	24
29.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조진형 · 김성조 · 원유철 · 정갑윤 · 최인기 · 이은재 · 이명수 · 김태원 · 최규식 · 신지호 · 장제원 · 유정현 · 김소남 · 정수성 · 안경률 · 김충조 · 이범래 의원 발의)	24
3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3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사덕 의원 대표발의)(홍사덕 · 김무성 · 김옥이 · 김을동 · 김효재 · 나성린 · 박종근 · 서상기 · 성윤환 · 송훈석 · 안형환 · 유승민 · 윤석용 · 이명규 · 이인기 · 이해봉 · 정의화 · 조원진 · 한선교 의원 발의)	24
3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3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 광정숙 의원 발의)(계속)	24
3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 의원 대표발의)(김효재 · 홍사덕 · 유성엽 · 손숙미 · 김영진 · 이한성 · 신학용 · 주호영 · 박대해 · 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24
35.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김정권 · 유성엽 · 손범규 · 신성범 · 임두성 · 정병국 · 이한선 · 이인기 · 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24
36.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김정권 · 이시종 · 현경병 · 박순자 · 이해봉 · 홍일표 · 정옥임 · 이인기 · 이주영 · 유기준 · 정해걸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24
37. 大韓民國藝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4
38. 예술인 복지법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강명순 · 고승덕 · 김정권 · 유성엽 · 신상진 · 주광덕 · 조승수 · 조운선 · 이시종 · 배영식 의원 발의)(계속)	24
39. 예술인복지법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백재현 · 원혜영 · 박은수 · 장세환 · 양승조 · 변재일 · 우제창 · 강기정 · 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24
4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신상진 · 이해봉 · 손범규 · 안효대 · 황우여 · 김충환 · 이주영 · 유승민 · 허원제 의원 발의)(계속)	24
4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 · 김우남 · 김태환 · 안효대 · 이한성 · 유기준 · 이인기 · 우제창 · 강석호 · 임동규 · 박은수 의원 발의)(계속)	24
4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 광정숙 의원 발의)(계속)	24
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을동 · 변재일 · 송훈석 · 서갑원 · 이광재 · 전병현 · 전재희 · 조영택 · 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25
4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 · 강성종 · 김성곤 · 김영진 · 김장수 · 김재윤 · 김정권 · 노영민 · 박선숙 · 송영길 · 안민석 · 양승조 · 오제세 · 이낙연 · 이시종 · 이용섭 · 이주영 · 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25
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박대해 · 윤상현 · 이해봉 · 이인기 · 임동규 · 김옥이 · 강승규 · 홍사덕 · 신영수 의원 발의)(계속)	25
4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병국 의원 대표발의)(최병국 · 정갑윤 · 안상수 · 주성영 · 안효대 · 현경병 · 최인기 · 박민식 · 최연희 · 허태열 · 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25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사덕 의원 대표발의)(홍사덕 · 김금래 · 김무성 · 김옥이 · 김을동 · 김효재 · 나성린 · 박종근 · 서상기 · 성윤환 · 송훈석 · 안형환 · 유승민 · 윤석용 · 이경재 · 이명규 · 이인기 · 이해봉 · 정의화 · 조원진 · 주성영 · 진성호 · 한선교 · 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25

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안효대·유성엽·이한성·정영희·김정권·안홍준·조경태·정의화·조원진·김성태·임동규·유정현·신지호·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25

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안상수·최구식·주성영·김세연·장제원·한선교·박민식·윤석용·유정현 의원 발의)(계속) 25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이성현·이해봉·김소남·신영수·안상수·강성천·이운성·홍장표·이정선·임두성·이한성·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25

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김정권·박은수·이시종·이한성·이성현·안효대·유성엽·김성태·신상진·권영진·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25

5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이한성·손범규·유성엽·김태원·이인기·정영희·이해봉·이주영·김성태·김부겸·신영수·이계진·권영세·이경재·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25

53.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안효대·박종근·박대해·임동규·김옥이·강승규·김을동·홍사덕·신영수 의원 발의)(계속) 25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 나. 영화발전기금
 - 다. 지역신문발전기금
 - 라. 언론진흥기금
 - 마. 관광진흥개발기금
 - 바. 국민체육진흥기금
 - 사. 문화재보호기금
 - 아. 방송통신발전기금
3.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장 정병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6건,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호기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총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의사

일정 제3항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김부겸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밤을 새워 가시면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원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허원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허원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등을 중심으로, 7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부 소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원안을 의결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비 증액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460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안은 109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1338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

은 1305억 원을 감액하고, 213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은 정부가 제출한 총 524억 원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문화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첫째, 종교문화역사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경우 2011년 예산안에 3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 결산심사 시 '민족문화원형사업'과의 중복성이 지적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예산안 448억 9200만 원 중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은 체험행사, 관광코스 개발 등 민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증액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사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및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3D콘텐츠산업 육성사업 중 시장창출형 콘텐츠 발굴 지원에 30억 원, 3D지역클러스터 구축에 30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에 대한 재택 모니터링 강화, 표절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사업에 19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HD 드라마타운 건립사업에 38억 원을 신규 증액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사업비를 11억 3100만 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문화시설 확충, 관광자원 개발, 체육진흥기반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총 350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에 370억 원,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출자금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60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같은 규모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부 소관 6개 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부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공연예술 전용공간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 나눔·기부 활성화 사업에 10억 5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총 86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 부가시장 활성화 사업에 10억 원, 국제영화제 육성사업에 15억 원 등 총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언론진흥기금은 인터넷신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문산업 진흥사업에 9억 원, 독자 권익 보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사업에 15억 5000만 원 등 총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에서 500억 원, 녹색성장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비에서 5억 원을 감액했고, 부족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시설 용자사업에 200억 원,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 지원사업에 75억 5000만 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30억 원,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에 46억 원 등 총 47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에서 800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사업에 76억 7600만 원,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사업에 70억 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에 381억 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사업에 49억 원, F1 코리아 그랑프리 지원사업에 368억 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319억 4500만 원 등 총 1517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문화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총 25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 및 광특회계 예산안과 문화재보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5000만 원을 감액하고, 589억 10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도 신규사업인 문화재홀로그래프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최근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안 규모(1850억 원)가 시·도 신청액(9000억 원) 대비 20.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3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세계유산 등재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신설하고 1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공연 및 전통공예전시회 등에 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발굴되고 있는 수중문화재의 보관을 위한 수중유물보관동 건립 설계비 14억 원을 증액하고, 문화재 관람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바우처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문화재보호기금 수입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기금 지출계획안은 33억 원을 감액하고, 5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사업에 3억 원,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사업에서 20억 원,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에서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한 수문설치 사업에 45억 원, 청소년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에 3억 원, 전통가옥 경상 보수비에 5억 원,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상고사 상실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비에 2억 원 등 총 57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외에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총 2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통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스캠

에 대한 과태료 세입예산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출예산안은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44억 9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위치정보 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은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돼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둘째, 범국가적 차원에서 작성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가이드라인과 온실가스 정보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녹색방송통신 확산기반 조성사업에는 2억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 IT기업의 열악한 자금력 등을 고려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테스트베드 운영·관리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무선인터넷 이용 증가로 인한 혼·간섭 발생지역의 와이파이 채널을 조사하고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IP-USN 확산사업이 2010년 조기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소한 2년간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2010년 예산과 동일한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안은 원안 의결했고, 지출계획안은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173억 4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고단체연합회의 조사 및 홍보 사업에서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2억 2300만 원을 감액했고,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민원처리 및 컨버터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42억 3000만 원,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비에 49억 2700만 원, 국악방송 지원사업비에 10억 원 등 173억 4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한편 공동체라디오방송 제작지원사업은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들이 취약한 광고 수입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제작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시 향후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통하여 운영할 것 등을 부대조건으로 첨부한 만큼 이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의 논의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방통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총 3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위원님.

○최문순 위원 심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산편성이 아주 잘된 거 같다는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몇 번 문제 제기를 했던 거 중에서 국립오페라합창단, 지금은 나라오페라합창단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누락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4억 원의 예산편성을 추가로 요구드립니다. 이 내용은 누차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는 사안입니다.

작년에 유인촌 장관께서는 직제 규정상의 미비라는 이유를 들어서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하고 지금은 나라오페라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4월이면 끝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해 주지 않으면 해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체되어도 괜찮은가,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차피 나라오페라합창단 형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품질과 안정성을 위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장관께서 그동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직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 그다음에 단원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이유, 그다음에 기존 단원들 외에 다른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의지가 전달이 됐고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14억 원의

예산편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국 다음은 전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숙 위원 민주당 전해숙 위원입니다.

해외홍보콘텐츠 제작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 세계 670만 재외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뉴스 또 한상의 활동, 그 외에 이분들에게 정치적 권리, 이런 것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실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에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묶어 내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것은 조금 증액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감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예산을 줄여서 쓰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병국 또 다른 의견들 계십니까?

이용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위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심사소위에서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여기서, 국회에서는 주로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지고 견제하는 것이 사실 주 임무인데 예산이 저희 상임위를 통하면서 항상 증액이 됩니다.

올해도 지금 문화부 예산이 2000억 증액이 됐고, 작년에도 3000억이 증액이 됐고, 재작년에는 또 200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상임위 통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지, 저는 이것이 과연 원칙이 있는 그러한 예산 증액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문화부에 2060억 원의 예산 증액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 물론 사찰 보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화부에서 이거를 전체적인 자원과 필요한 사찰을 생각해서 틀을 짜 가져 왔는데 거기에다가 원칙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증액을 해 줬다든지, 혹은 다른 신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술개발 쪽은 깎았어요. 거기다

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국감하고 예산 질의 과정…… 줄기차게 KBS 등의 난시청과 관련해서 자연적 난시청 가구가 한 70가구가 되는데 자연적인 난시청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난시청이 더 큰 문제이고, 여기에 공중파 방송을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할 수 없이 돈을 내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현실 파악이라도 하자, 이래서 그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인위적 난시청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 주는 홍보 사업, 이거를 계속해서 해 달라고 요구했고, 아마 이번에 마지막에 방통위에서도 이걸 올렸나 본데 그런 서민적이 예산은 깎았어요, 5억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서 이번 문방위 소위에서 한 예산심의가 과연 어떤 원칙으로 된 건지, 왜 우리 소위만 지나가면 예산이 2000억, 3000억씩 늘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국** 또 다른 위원님들, 이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지난번에 정병국 위원장과 함께 우리가 대중문화예술단체들을, 직접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 차원에서 제기됐던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아주 입체적인 여러 차원에서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예산소위를 거치면서 적절하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예산 증액을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예계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계의 소득격차 또 양극화 심화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근 불거진 한예조의 출연 거부사태 또 뮤지컬에서 발생한 도끼 폭행사건,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문화부가 열악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현실을 실제 아마 세밀하게 통찰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법률, 세무, 의료,

재교육 등 사업 예산 전액 자체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 소관 핵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이 예산안의 전액 누락에 대해서 증액 조치를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없으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원래 계획대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체계 구축사업, 내년도 예산을 예산심사소위에서 적절하게 증액 조치한 것은 문화향유권이 이제 국민기본권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지금의 차원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지원체계 사업은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 장관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금액이 상임위에서 증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 아쉬운 그런 건 있겠지만요 일단은 없던 제도를 처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잘 정비하고 보완해서 점점 늘려 나가는 쪽으로…… 대중문화예술은 지금 예산뿐 아니라 제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손을 대고 있는 입장이라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마지막 예산 확정될 때까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G20 서울정상회의는 경제정상회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G20 차원의 문화 성숙도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한 방편의 첫 시도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내년도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국** 다음은 서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위원** 민주당 전남 순천의 서갑원 위원입니다.

그간에 밤늦게까지, 또 자정을 넘겨서까지 예산 심사해 주신 김부겸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

리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비교적 심사를 잘 해 주신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면서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체육바우처와 관련돼서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매칭을 할 수 없으면 대응 투자를 할 수 없어서 결국 집행률이 낮거나 불용 우려가 가장 심한 사업 중의 하나가 문화바우처·체육바우처라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또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또 예결위나 본회의 전체 모든 의원들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 예산도 결국 매칭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현행대로 간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 부대의견의 적시가 그렇게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인촌 장관께 해당하는 일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부당한 해임으로 인한, 김정현 문화예술위원장 또 김윤수 국립미술관장, 황지우 예종 총장에 대한 해임이 법원에서 다 무효 확인 판결이 났습니다. 김정현 위원장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다 대법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언론이나 또 국민들, 우리 야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처음부터 이 부당함을 제기했는데 이로 인해서 막대한 국고손실이 있었고 또 그분들에 대한 명예가 대단히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촌 장관께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게 저는 당연하고 또 합리적이고 온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이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디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나친 소송의 남발로 인해서 국고를 손실한 부분에 대해서

는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KBS 이사회가 지난 19일 날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대로 인상이 되는 경우에 09년에 5500억 수준이던 KBS 수신료 수입은 2000억 이상 늘어난 7700억 규모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KBS의 인상안이 11월 24일 방통위에 접수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서갑원 위원 방송법은 KBS가 방통위에 인상안을 제출할 때 갖춰야 할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 방통위의 제출서류가 그 요건들을 갖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지금 실무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갑원 위원 현재까지 별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아직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서갑원 위원 본 위원 파악하고 있기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과 같은 수신료의 인상은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방통위에 제출된 서류가 가장 중요한 여론수렴이 빠져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아직 자세한 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갑원 위원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서갑원 위원 방통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 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저희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액 여부는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 서갑원 위원** 방통위 권한이 금액에 대해서, 3500원 인상안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 없으면……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서갑원 위원** 의견은 제시하는데, 그 의견제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자료로 제공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 서갑원 위원** 그런 정도라면 더더구나 국민들의 여론수렴 과정 또 절차들, 결과들을 같이 함께 심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만약 그런 것이 제출안 됐다면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 서갑원 위원** 아무튼 대단히 우리 국민들은 방통위와 KBS가 사전에 수신료 인상에 합의하고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거든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체적이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올 연내에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처리해서 국회도 보내 주실 건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전혀 어떤 그런 일정을 계획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 KBS 측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 서갑원 위원** 알겠습니다.
- 수신료 인상은 심층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야 할 사안이고 또 KBS 수신료 인상안이 공공성·공영성·공정성 제고를 포함한 사회적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보여집니다.
- 따라서 주무기관으로서 책임 있고 충실한 검토를 거쳐서 심의하고, 그 모든 과정이 적법하고 합당하게, 또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에 맞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갑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병국**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난시청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또 정부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본 위원도 두 차례 지적했고 지금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기존 아날로그 방송체계에서 난시청 문제가 여전히 취약계층 또 서민계층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서울 마포도 구릉지와 평지가 교차하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역구를 순방하면서 보면 케이블 등을 설치하지 않은 가게 등에서 상당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거의 화면 떨림 때문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아날로그 방송의 취약 난시청 지역을 케이블 등 위성 이런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난시청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궁극적으로 케이블이나 새로운 뉴미디어 채널로 다 전환하면서 그 소외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파의 기능을 살려서 기지국 등을 계속 살려와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에 특히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다 보니까 많은 서민층에서 이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위성 등 시청료를 내면서 KBS 수신료를 부담하는데 또 이런 난시청 지역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또 하나의 서민들의 불만이 있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디지털 전환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많은 국민들은 디지털로 전환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디지털로 전환하더라도 기지국이라든지 컨버터 이런 기능들이 전환이 빨리 신속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서민층의 소위 난시청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저는 이게

투자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지국을 더 증가해서,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때 2012년까지 기지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켜서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 새로운 채널, 새로운 플랫폼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난시청 지역을, 난시청 세대·가구 취약층을 새로운 뉴플랫폼이라든지 채널을 그쪽의 지원을 통해서 난시청을 해소할지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어야 지금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또 서민층에서 희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고 안 반영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난시청 문제는 아날로그 시대인 지금도 문제점으로 되고 있지만 디지털화되면 더 그것이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된 세 지역의 시범전환을 보니까 이때까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적인 문제점이 파악되고 해서 그것을 모두 파악해서 내년에 제주도 전역을 하고 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 후반기쯤은 2012년에 디지털 시대의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고 지금 스케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는 기지국 증설이라든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일반 시민들의 기대감에도…… 아마 조금 더 기대감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다음은 장병완 위원님.

○**장병완 위원** 공연예술제를 대표적인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지역의 특색 있는 공연예술제를 새로 신규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측에서 재원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쪽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해 왔던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묶어서 시행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과정에서 그것을, 공모사업을 금년 수준보다 삭감하는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러 가지 특색있는, 지역에 한정된 예술제를 반영하더라도 공모사업을 줄이는 것은 아무래

도 정부 정책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도록 의결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게 그림에도 불구하고 금년보다 5억이 삭감된 것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소위 심사 의도 자체가 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타당하다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을 좀 수정하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국**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소위 김부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들께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상임위가 예산 심사를 마친 유일한 상임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있는 지역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업 챙기기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그동안 상임위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즐기치게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하는데 구 청사, 지금 아직도 도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도청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현 도청 청사를 근현대사박물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이 ‘근현대사박물관이 대전에 유치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문광부에서도 ‘현대사박물관을 현재 문광부 청사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때 약속을 어긴 바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새삼 제가 왈가왈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충남도청 청사를 근현대사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100% 수행하지는 못할지라도 도청 청사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해서 그에 버금가는 사업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광부에서 충남도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올해 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 청사를 한발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용역의 대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에서는 또 이것을 '대전시에서 광적으로 추진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도청 청사를 근현대사박물관으로 하는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간 만큼 적어도 이 청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에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지금 문광부에서 오리발 내밀기 식으로 하고 또 이 청사 활용을 대전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소한 내년에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설계비로 10억 원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소 길게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촌 장관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이번에 예산심사 결과에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충남도청 자체가 이미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지나 건물 자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형평에 맞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화단지든 예술단지든 잘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그것을 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개 그동안 이런 거를 할 때 부지 매입은 지자체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고에서 충당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해 왔던 것인데 유일하게 아시아문화전당이 특별법 제정되면서 국고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 외 여러 지역에서 계속 이 아시아문화전당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청 자체를 저희들이 하여간 힘을 합쳐서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이게 상업적인 공간으로 가면 오히려 아마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그 지역 자체

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지난번에 국비로 5억 원을 책정해서 용역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예산이 안 서면 밑그림만 그려 놓고 다시 백지상태로 환원시키는 꼴이 되는데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이런 사업은 일관성 있게 문광부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은 하여간 계획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현 청사를 매각하면 한 800억 정도의 재정이 나온다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사들여 가지고 그 예산을 청사를 재활용하는 재원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게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하여간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호 위원님.

○진성호 위원 저는 예결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김부겸 소위원장을 포함해서 장병완 위원님, 김을동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과 한나라당 위원들이 어떤 날은 밤 4시를 넘기면서, 새벽 4시까지 한 적도 있는데 토론은 굉장히 진하게 했지만 크게 사실은 논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장병완 위원 같으신 분은 예산의 전문가시고 또 저희들은 공무원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추려 보니까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460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에 381억, 그다음에 F1 코리아그랑프리 지원에 368억, 태권도 관련 사업에 300여억,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이나 또는 특정한 문화나 체육의 목표를 가진 사업에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많은 증액 같지는 않고 또 하나는 문화부나 방통위의

예산을 기재부에 설명하는 게 제가 볼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또는 통신 관련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크게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의를 하면서 다 필요한 예산인데 하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문화재청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문방위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본인의 지역구나 본인의 고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고 또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요청을 들었는데 다만 예결 심의 결과 제가 볼 때는 한 군데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대구입니다.

유인촌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진성호 위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을 했는데 대구 육상선수권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운영자금은 30%인가를 때문에 16억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복권기금 같은 데서 우선적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책임지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 대구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0억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또 스포츠국장이나 이런 분들 말씀은 그거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그런 복권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거는 당장 내년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복권기금도 복권기금이고 사실은 저는 상임위에서 더……

○진성호 위원 그러면 스포츠국장이 나와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증액하거나 아니면 토토를 증량 발행하거나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호 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꼭 좀 구체적인 답변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김기홍 국장이 대구 대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김기홍 예, 대구 부분에는 운영비 30% 원칙 때문에 증액을 해 드리

지 못했는데 당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토도 증량 발행 부분은 총량 제하고 예외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대구시의 운영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성호 위원 어쨌든 대구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절대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진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국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 委員 관심 항목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마는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새벽 4시 반까지 수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만 오늘 회의가 아니면 아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최근의 긴급현안 한 가지 좀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30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생략하고 맨 끝에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趙舜衡 委員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역대정부에서 물론 장관 명칭은 자꾸 바뀌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전신인 공보부장관이라든가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와서는 그 전 정부도 그렇고, 직전 정부도 그렇고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잔인무도한 연평도 포격 도발사태와 관련해서, 그날이 11월 23일이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 소집하고 병커에 들어가서 몇 시간 회의하고 나서 오후 6시 30분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홍상표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하면서 정부성명을 낭독해서 발표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인 이런 미증유의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부의 참…… 우리 국민

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발표를 합니까? 홍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에 불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헌법상에 그 지위와 권한이 규정된 국무위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서 임명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저희 부처로 홍보기능이 넘어오면서 사실은 정부 대변인이다라는 그 기능이 국정홍보처에 있던 것이 그냥 넘어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정부 초기에 홍보처가 폐지되면서 사실은 기능별로 각 부처로 다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정부 대변인 역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사안대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과 같은 사태, 이런 거를 봐서 이번에 제가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거는 하세요. 그거는 해야지 아직까지 정부조직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문화부장관이 못 한다고 하면 외교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리고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공식적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보장관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이러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 입장을 발표해야겠다, 국무위원 의견도 들어서 그래 가지고 정부를 대표해서, 내각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내외신 기자한테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가 준법의식이 아주 약해, 이 정부 자체가 말이지요. 6·25전쟁 때도 헌법, 법률 다 지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국무회의 아직 소집도 안 했지요, 한 번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안보장관회의만 소집을 했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 안보장관회의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거는 편의상 하는 것이고. 사실은 국가

안보회의 소집을 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저거할 계획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저도 여러 번 사실은 그동안에……

○趙舜衡 委員 이게 무슨 장관의 권한이고 이런 거를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리고 그 성명 자체도 말하면 한이 없지만 정말 너무나 소홀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말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국무회의가 소집되면 한 말씀 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나중에 제가…… 이번에 좀 건의도 하고……

○趙舜衡 委員 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아니, 지금 유인촌 장관께서는 후임 기다리시는 입장 아니에요? 못할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좀 해야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지! 병커에 들어가 가지고 수석비서관이나 부르고 외교안보장관이나……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대변인이라고 하던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동안에는 이게 기능적으로 각 부처가 대변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趙舜衡 委員 그래 가지고 말이지요, 몇 시간씩 그러다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趙舜衡 委員 아, 잠깐만 있어요.

그리고요, 꼭 좀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국무회의에서 아주 정식으로 정리를 해서 하세요, 한번. 정식으로 의제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리고 문화재청장께…… 금방 끝낼게요.

외규장각 도서, 한국·프랑스 대통령이 합의를 했어요?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趙舜衡 委員 그런데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국립도서관 사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언론까지, 프

랑스 언론까지 가세하고요. 무슨 실무협약이…… 후속 실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시작됐어요? 언제 하실 작정이세요?

○문화재청장 이견무 아직 지금 외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舜衡 委員 만날 외교부 얘기만 하지 마세요, 문화재청장님.

저는요, 이거 잘못하면 반환 못 받습니다. 파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요, 그렇게 단결해 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프랑스 전국의 박물관·도서관 사서들이 일제히 가세를 하고요. 문화계까지 확산되고 지금 이려고 있어요. 실력행사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사르코지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데 전경인지 뭔지 시켜 가지고 강제로 뺏어 옵니까?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내놓으면?

다음에 실무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철저히 임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대여하는 거다, 5년. 그리고 왜 중앙박물관에 소장하게 됩니까? 그렇게 합의를 했다며요?

○문화재청장 이견무 예,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趙舜衡 委員 왜 중앙박물관에…… 아니 그게 무슨 중앙박물관에 유산으로 전시할 겁니까?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가야지요.

○문화재청장 이견무 국민들 전체가 문화재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활용도 되고……

○趙舜衡 委員 아니, 그러면 한 권만 보면 되지, 269책을 다 전시할 겁니까?

○문화재청장 이견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수장고 상태가 제일 좋고……

○趙舜衡 委員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설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에 틀림없이 '이것은 프랑스에 소유권이 있는 문화재이고 5년 동안 대여한 것이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할 거예요?

○문화재청장 이견무 저희는 프랑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면 실무협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무협상에 제대로 참여 않으면 파기하도록 대통령한테 건의하세요. 합의 파기, 파기하고요. 정식으로 이제는 반환 요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환 요구로 들어

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싸워야 됩니다.

저는 50년 후, 100년 후는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50년 후면 지금 파리 중앙도서관의 사서들도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 다 뜰 것이고,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다 뜨고. 우리 후손들이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말이지요 우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전 세계적 추세가 강제로 약탈한 문화유산을 다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가 최근에 이집트에 문화재 반환했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돼요. 조금해할 게 없어요. 외규장각 도서 없이 우리 150년 잘 지냈어요. 대한민국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실무협상 잘 안 되면 파기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동 위원 한나라당 김성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간단히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현안이 되고 있는데 F1코리아그랑프리 지원사업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제적인 빅 스포츠이벤트이고 국가의 신뢰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소위에서도 고심에 찬 토론들이 계셨으리라고 보는데요.

다만 요새 지적되는 주관사인가요, 시행사 KAVO의 문제점, 지금 전남도의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특감도 하고 또 전남도 차원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추궁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간단히 여쭙 보고 싶은 게 만약에 후속적인 조사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시행사에 문제가 있을 때 문화부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지도라든가 개선의 어떤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간단히 한번 여쭙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직접 저희들이 그런 어떤 명령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 자체를 올해,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7년간 해야 하고요.

거기다가 매년 개최권료를 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예산 쪽으로 저희들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서 그런 부분을 잘 맞춰 주지 않으면……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다가 지금 중단된 나라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인가 세 번 하다가 결국은 시합을 포기하고 반납해 버리고 말았는데요. 터키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자체하고도 특히 저희가 협조를 잘해야 되고요. 또 이번 카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특히 국고가 누수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예산 심사 결과를 보니까 심사위원들께서 아주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다는 게 나타나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예년에 죽 보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채택한 그런 예산안들이 여기서는 우리가 잘되었다고 만족스러워하면서도 막상 예결위에 가서 거의 다 깎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잔치만 벌일 상황은 아니다, 이용경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애당초부터 올렸던 것 아니고는 별도로 추가한 것은 거의 깎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된다면 아무리 밤새워서 일했다 하더라도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측면에서 두 장관님과 청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들 중에서 예결위에 속하신 분들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특별히 스포츠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381억 원을 증액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인 것이 다시 원안으로 돌아섰을 뿐이지 새롭게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폐막식에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김창수 위원, 문광위에서도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 준비하는 것보다는 아마 20배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량적으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보다 격조 높으면서도 예산이 더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알뜰살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초적인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아무리 우리가 증액을 시켜 놓고 환원을 해 냈다 하더라도 이게 예결위에 가서 무산이 되어 버리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말이지요,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KBS에 관한 수신료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애당초부터 야당 때나 지금이나 원칙적으로 30년 전에 책정되었던 것은 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공영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영성이라는 것은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서 국민에게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영방송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디지털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합의된 내용을 보니까 광고는 그대로 하고 수신료만 올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는 겁니다. 목표가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그 원인은 광고를 없애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중편에 흘러가게 되어서 무엇을 왜곡시킨다는 반대 논리,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논리도 안 되는 현실적이지도 않는 주장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인상만 덜렁해 놓는 것을 해 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국**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을 하고자 안전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상정된 안전 중심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견은 나중에 저희가 충분히 듣고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 예산안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장선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 관련된 것은……

○위원장 정병국 정책 관련은 기타 토의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일단은 안전에 충실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위원님.

○이용경 위원 여기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110억 가량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우리나라의 사찰문화라든지 불교문화에 대한 홍보는 절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수입·지출 이것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영리사업입니까, 비영리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영리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용경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무슨 자료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이 나중에 아마 보조금 정산하는 쪽으로 보고를 받고요.

○이용경 위원 보조금의 적자에 대한 정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이것은 적자이다, 흑자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용경 위원 아니,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하고 주로 이런 보조금이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다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문화의 홍보, 우리 역사의 홍보,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여기다가 맡기실 거예요, 앞으로 불교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지금까지도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그 문화사업단에서 어느 사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템플스테이를 하겠다라는 집행 자체는 그쪽에서 다 합니다.

○이용경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의 정당한 사용 이러한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어카운팅(accounting)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용경 위원 한 가지 문화재청장님, 질문……

여기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전통사찰하고 문화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재청장 이건무 전통사찰은 문화부 사업입니다.

○이용경 위원 아니, 글썄 전통사찰하고 문화재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문화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화재청장 이건무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 나가는 사찰은 문화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경 위원 문화재가 있어야지……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그렇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개의 사찰은 다 문화재가 있는 데입니까?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그렇습니다.

○이용경 위원 있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딴 데는?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전통사찰은 문화재가 없는 사찰입니다.

○이용경 위원 문화재가 없는?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이용경 위원 지금 금방 또 문화재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재청장 이건무 아니, 그러니까 전통사찰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전통사찰은 문화재가 없는 사찰입니다.

○이용경 위원 문화재를 보유 안 하고?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저희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 나가는 사찰은 문화재가 있는……

○이용경 위원 예, 그러면 아무튼 이 10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에 5억 원은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허원제 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용경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병국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아까 충남도청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해지요. 올해 5억 원을 국비 책정한 데 이어서 내년 예산에 기초설계비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해 주셔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척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위 위원들께서 심사를 아주 세밀하게 잘해 주셨

는데, 특히 국악방송에 10억 원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 때도 우리 전통음악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악이 어떻게 보면 여러 무슨 공연이라고 할까 또 경연대회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중화시키고 저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 방송인프라는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국악방송을 전 국민이 청취할 수 있게끔 인프라 확충에 우리가 예산을 좀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방송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무슨 방송기술상의 혼신인가 이런 게 일어나 가지고 제대로 영역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아울러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또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과 협의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한 것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진성호 위원** 5억 원 반영했어요.

○**위원장 정병국** 그러면 기관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장 정병국** 정부의 동의를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문화재청장께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위원장 정병국** 정부의 동의를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2011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 2011년도 문화재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국** 정부의 동의를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들에 대한 계수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민자사업 한도액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각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정부 원안보

다 증액하여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 각 사업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또 사려 깊은 검토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한편,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시고 정부 예산안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제안하고 증액·반영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그 어느 해보다도 치열하게 소위 활동기간 중 연일 철야 심사를 하면서까지 우리 부 사업을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김부겸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태 위원님, 김을동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진성호 위원님, 허원제 위원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우리 부 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회 심의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 정책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무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분들은 서면으로 인사하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국 서면으로요?

○전혜숙 위원 예.

○위원장 정병국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짧게 하시지요. 짧게 짧게 하십시오.

○전혜숙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김창수 위원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재청장 이건무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1년도 문화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부겸 소위원장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청은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가치를 알리는 데 있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증액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늘 지적해 주신 많은 사항들은 최대한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로 고생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깊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문방위에서는 그동안 보면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예산안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 온 내용들을 보면 다른 분야와 틀리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분야는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지역사업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해당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밤을 세워가면서 예산안을 증액을 한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제대로

통과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방송통신 분야는 늘상 여러 가지 문제를 잉태를 합니다.

저는 몇 번을 지적을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부처에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부터도 우리 문방위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힘이 부치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예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건 또 다른 부분에서 의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건, 이랬을 때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지원을 요청하게 하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보다 더 효율적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는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착수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번에도 보면 2000여억 원의 증액을 했습시다마는 반 이상이 지역에서 유치한 국제행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에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방위 산하기관의 예산은 1억, 2억이 없어서 한 단체가 1년 사업 전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몇 억으로 수십 건을 살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저는 정부에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제적 대회를 유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우선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유치해서 감당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수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각 기관장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41분)

○위원장 정병국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난 9월 17일자로 공포된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계획에서 자체수입 245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2004년 착수하여 2008년 준공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 발행한 165억 원의 대출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감사원 감사를 거친 후 9월 결산 국회에서도 동 상환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한선교 간사와 사회교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륜·경정법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륜·경정 수익금으로부터 전입된 245억 700만 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대출금은 2004년 12월 당시 민간에서 대학로에 신축 중이던 상가를 문화예술위원회가 인수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생긴 대출금입니다. 10월 24일 현재 16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에 전입된 경륜·경정 수익금 일부를 수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먼저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서울 마포갑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대학로 복합문화 공간의 손실 부분, 상가 분양·임대 조달 저조 등으로 무려 164억 원이라는 것을 기금에서 물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를 다 취했나요,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원에서는 물론 기관 징계도 받았고요, 여러 지적을 받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이게 당시에 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거든요, 원래 법적으로는 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과 또 월 7000~1억 사이의 이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선교 간사, 정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가 보시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빨리 대출 빚을 갚고……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분양해서 이걸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됩니다, 건물이 잘못 지어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문화적인 건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 건물은 오히려 문화예술계에 지원하는 건물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

게 전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민간기업이나 다른 어떤 정부기업이 아니라고 할 때는 부도가 나도 또 상당수 구상권이 다 추정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막대한 기금들이 낭비되고 저기한테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문화부나 정부 방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이 건물이 공연예술계에 잘 환원이 돼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장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김정현 위원장 해임에 이 문제도 굉장히 큰 사유가 있었는데 재판에서 어쨌든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또 행위자였고, 정부가 바뀌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예술위원장이 교체되고 또 그런 것이 재판 가고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냥 기금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 보전하고 끝나고 말아야 되는 건가요, 누가 다른 부분에서 이런 실수나 이런 실점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기관 경고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리고 그냥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런 상태로 또 운영되고 기금은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다 충분히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거에……

○강승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가 기금 운용해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문화예술 운영에 대해서라든지 기금 운용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들을 충분히 비전을 제시하고, 당시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한 이후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감사원에서 어떤 기관 경고하고 뭐하고 그렇게만 하고 끝나나요? 이렇게 자기들이 한 부분에서 어정쩡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나

중에 저기할 수…… 이거는 정권 문제는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문화관광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자들의 문제입니다.

누가 어떤 압력이나 부탁을 했건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막대한,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력입니까? 인력도 중요하지만 165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너무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정말 문화예술위원회는 물론 문광부에서 적어도 이에 대한 백서를 만들든지, 또 이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면 이의 있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기금 변경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 소관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대출금 상환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금 운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동 공간의 리모델링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대학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국 수고하셨습니다.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서갑원·조경태·조배

숙·양승조·박영선·김성수·박은수·강기정·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8553)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이경제·장제원·유성엽·한선교·박대해·박민식·김소남·원희목·이인기·박영아 의원 발의)
1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강창일·박기춘·신낙균·김부겸·안규백·서갑원·전병헌·김재균·송민순·최문순·최철국·이용경·장세환·김성곤·이용섭·최종원·문학진·조영택·이종걸 의원 발의)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노영민·최철국·강창일·박주선·박은수·주승용·강기정·전병헌·송민순 의원 발의)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김낙성·김용구·노영민·류근찬·박상돈·이명수·이상민·이용경·이재선·이진삼·임영호·조영택 의원 발의)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옥이·김을동·박민식·박보환·박상은·박순자·서병수·신낙균·유기준·이경제·이성현·이운성·이주영·이한성·정수성·정옥임·조진래·차명진 의원 발의)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안규백·강창일·이계진·김재윤·강기갑·신건·최규성·이사철·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929)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최문순·강기갑·강기정·김부겸·김재윤·김진애·문학진·박은수·신학용·양승조·원혜영·이미경·이성남·이용섭·장세환·정동영·조승수·조영택·최영희·홍희덕 의원 발의)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강창일·박기춘·신낙균·김부겸·안규백·서갑원·전병헌·김재균·송민순·최문순·박은수·최철국·이용경·장세환·김성곤·이용섭·최종원·문학진·조

영택·이종걸 의원 발의)

17.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6738)
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송영선·김우남·이명수·이한성·손범규·유성엽·이해봉·김성태·신영수·조영택·이주영·진성호·황우여·홍희덕 의원 발의)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419)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596)
2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이한성·정수성·유성엽·김태원·이인기·정영희·이주영·신영수·이계진·권영세·이경제·권선택 의원 발의)
2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강성중·강운태·김영록·김효석·우윤근·조경태·전혜숙·최철국·홍영표 의원 발의)
26.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최영희·이한성·정수성·손범규·김태원·이인기·이계진·신영수·권영세·이경제 의원 발의)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무성·이한성·황우여·이해봉·안형환·김금래·안홍준·김소남·이인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2)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명규·김영선·이인기·최구식·김옥이·이경제·홍사덕·안형환·이학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9547)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조진형·김성조·원유철·정갑윤·최인기·이은재·이명수·김태원·최규식·신지호·장제원·유정현·김소남·정수성·안경률·김충조·이범래 의원 발의)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사덕 의원 대표발의)(홍사덕·김무성·김옥이·김을동·김효재·나성린·박종근·서상기·성윤환·송훈석·안형환·유승민·윤석용·이명규·이인기·이해봉·정의화·조원진·한선교 의원 발의)
3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3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 의원 대표발의)(김효재·홍사덕·유성엽·손숙미·김영진·이한성·신학용·주호영·박대해·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35.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김정권·유성엽·손범규·신성범·임두성·정병국·이한선·이인기·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36.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김정권·이시중·현경병·박순자·이해봉·홍일표·정옥임·이인기·이주영·유기준·정해걸·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37. **大韓民國藝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예술인 복지법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강명순·고승덕·김정권·유성엽·신상진·주광덕·조승수·조운선·이시중·배영식 의원 발의)(계속)
39. **예술인복지법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백재현·원혜영·박은수·장세환·양승조·변재일·우제창·강기정·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4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신상진·이해봉·손범규·안효대·황우여·김충환·이주영·유승민·허원제 의원 발의)(계속)
4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김우남·김태환·안효대·이한성·유기준·이인기·우제창·강석호·임동규·박은수 의원 발의)(계속)
4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

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을동·변재일·송훈석·서갑원·이광재·전병현·전재희·조영택·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4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강성중·김성곤·김영진·김장수·김재윤·김정권·노영민·박선숙·송영길·안민석·양승조·오제세·이낙연·이시중·이용섭·이주영·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박대해·윤상현·이해봉·이인기·임동규·김옥이·강승규·홍사덕·신영수 의원 발의)(계속)

4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병국 의원 대

표발의)(최병국·정갑윤·안상수·주성영·안효대·현경병·최인기·박민식·최연희·허태열·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사덕 의원

대표발의)(홍사덕·김금래·김무성·김옥이·김을동·김효재·나성린·박종근·서상기·성윤환·송훈석·안형환·유승민·윤석용·이경재·이명규·이인기·이해봉·정의화·조원진·주성영·진성호·한선교·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안효대·유성엽·이한성·정영희·김정권·안홍준·조경태·정의화·조원진·김성태·임동규·유정현·신지호·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안상수·최구식·주성영·김세연·장제원·한선교·박민식·윤석용·유정현 의원 발의)(계속)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이성현·이해봉·김소남·신영수·안상수·강성천·이윤성·홍장표·이정선·임두성·이한성·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

원 대표발의)(윤석용·김정권·박은수·이시중·이한성·이성현·안효대·유성엽·김성태·신상진·권영진·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5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이한성·손범규·유성엽·김태원·이인기·정영희·이해봉·이주영·김성태·김부겸·신영수·이계진·권영세·이경재·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53.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한선교 의원 대

표발의)(한선교·안효대·박종근·박대해·임동규·김옥이·강승규·김을동·홍사덕·신영수 의원 발의)(계속)

(11시52분)

○위원장 정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법률안들 중 의사일정 제53항~제32항은 오늘 처음 상정하는 법률안이며, 제33항~제53항은 지난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3항~제32항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법률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 발의 법안이 10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대한 제안 설명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미 사전에 위원님들께 검토보고 자료를 다 보내 드렸는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법률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병국 천정배 위원님.

○천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재판관 4 대 1 대 4, 그러니까 각하, 기각, 인용이 각각 4 대 1 대 4였습니다. 결국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1차 결정에서 스스로 언론악법 처리에 있어서 재투표, 대리투표 등 위법·불법이 있었고 또 그것이 야당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국회의장과 국회에 있다고 시정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회의장이나 국회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법을 기정사실로 해서 종편 등의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스스로의 권능과 존립 가치를 무너뜨린 데 대해서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들도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1차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헌법 유지에 책임을 다 못 한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언론악법, 미디어법 처리 자체의 위법성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도 또 재확인되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가 미디어법이 위헌·위법 상태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헌법재판

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언론악법, 미디어법의 날치기 처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날치기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스스로 훼손했던 입법부로서의 권위 또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과 또 국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의 지도부가 이 문제의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장과 한나라당에 다시 언론악법의 위법 상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마무리해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아직도 법적 근거와 정당성 없이 강행해 온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앞으로 국회의 재논의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위원장께서도 제가 말씀한 사항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국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안건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따라서는 의결을 해야 될 사안들도 있고 그러한 만큼 일단은 안건에 충실하게 의사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안건이 처리가 되면 별도 기타 토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은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견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심사한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최문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이용경 위원 발언 하나,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잠깐 기다리세요.

안건과 상관없지요? 기다리십시오.

○이용경 위원 예산하고 상관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국 잠깐 기다리십시오.

다음 회의는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논의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위원님.

○최문순 위원 유인촌 장관께서 정부대변인이시니까 그리고 국무회의에 곧 참석하신다니까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에 꼭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안함 사태 때문에 백령도에 자주 드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8월 4일 날 제가 개인성명을 한번 낸 바가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월 4일입니다. 정부가 훈련을, 육·해·공 합동해상훈련을 시작하고자 하는 8월 5일은 가장 많은 피서인파가 몰리는 휴가 절정기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NLL 인근의 여러 섬에는 수 천 명의 관광객이 이미 입도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내일 진행될 합동군사훈련과 그 훈련에 반발하여 군사적 타격 운운한 북한의 통보가 있었지만 관광객들에게 안전지침을 하달하거나 훈련에 따른 경고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8월 4일 그리고 9월, 10월, 11월 이미 포격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준만 정확히 하지 않았지 서로 서해 쪽으로 포격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우리 병사들, 군인들 그리고 여객선이 한 300, 400명씩을 태우고 다니는데 포격 한 방이면 300, 400명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군사훈련을 한 데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제가 현장에서 안내방송을 듣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니 그런 줄 아시라,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실탄사격을 하면서 북한의 장산곶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설사 조준하지 않더라도 오발이나 오폭에 의해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써 서너 달째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신께서만 병커에 들어가시면 뭐합니까? 국민들과 군인들 다 포탄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때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이 철저히 통제가 되어 가지고 연합뉴스 스틸사진 한 장만 딱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감과 국민들이 느끼는 감은 전혀 지금 다르게 느껴진 상태로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연평도에 있는 기자들에게 전부 강제철수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철수 통보는 권고 수준이 아니라 강제철수 형식의 통보임을 강조한다, 제가 보기에 상식 이하의 통보인데, 여기 외신기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쟁시에도 언론의 취재가 봉쇄되는 일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의 취재를 봉쇄하는 것은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오판을 하는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점을 가서 정확하게 현장

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장께, 광화문 현판의 갈라짐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그렇습니다.

○최문순 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감사와 관련 회의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시지요?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그렇습니다.

○최문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지금까지 기록이 잘 안 되고, 공개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녹음이 전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험을 하게 되면 동영상 촬영까지 이루어져서 전부 공개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문순 위원 언제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재청장 이건무 지금 목표는 12월 말까지입니다.

○최문순 위원 지난번에 12월 말까지라고 답변하셨는데 12월 말까지 엄정한 그리고 중간 중간에 조사결과, 조사내용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위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템플스테이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반복해서 우리나라의 사찰문화와 불교문화를 전파하는 것은 저는 절대 찬성한다, 단지 이것이 비영리사업이나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 문화부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정리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이용경 위원 그러면 비영리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이용경 위원 비영리사업이면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명한 어

카운팅이 되어야 되고, 만약 그것이 아니고 그냥 될지 모르겠다, 영리사업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지원은 용자라든지, 저리용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용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지 안팎으로 이것이 떳떳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예산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불교문화사업단하고 잘 의논해서, 실제로 돈을 받아도 거의 실비수준에서만 받는 것이니까요.

○이용경 위원 글썄, 만약 그것이 북기평(bookkeeping)이 되어 있으면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정리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다음 김을동 위원님.

○김을동 위원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소위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줄곧 우리 젊은 세대들의 역사 의식과 민족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부에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소위를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해 봤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가 생각했습니다.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 하면 교과부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문화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유관순 누나가 왜 죽었느냐고 물으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유관순 누나 나오면 태극기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 있다가 응원하다 죽었나, 이런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문화부에서 항상 할 때 전통이나 이런 민족 정체성 확립을 하는 데에 대한 예산에 의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거기에서 많이 간과된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부사업이든 민간보조사업이든 반드시 문화부가 이러한 예산에 우리나라 전통의식이라든가 역사의식, 민족의식 고취하는데 일정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조금이라도 특성

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행처럼 보면 예산을 올려도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국가보훈처라든지 또는 교육과학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사업이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주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꾸 빠지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를 좀 특성화시키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래서 의식 자체를 우리가 사업하는 것하고 국민 교육의 입장에서, 정신문화 교육의 입장에서 문화부가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관광가이드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수입만 생각하다 보면 많은 외국의 중국관광객이 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언어능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애국심이 있어야만 가이드의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좀더 알릴까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것부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 포진되고 있는 가이드 중에 국적이 한국이 아닌 대다수의 무자격 가이드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현장에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현재 아웃바운드…… 우리나라 여행사가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사 사장도 중국 또 가이드도 중국 또 기념품업자도 한국인이 아닌 중국,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 숫자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진입장벽을 있게 해서 법이라든가 이런 데 좀더 하고, 예산을 이번에 가이드 교육시키는 예산에 좀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했으니까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김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방통위원장님, 예결소위에서 동료 위원들이 한결같이 공감을 이루어 낸 그런 예산 증액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전체 사

교육비 시장에 한 21조 가운데 초·중학생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한 16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김성태 위원** 지난번 수능시험 연계 EBS 출제율도 70% 이상이, 물론 난이도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초·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위해서 EBS 교육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한 50억가량 증액 반영했거든요.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산하 관련 기관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의 애로점이 있으면 어떤 애로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총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예산안에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또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도록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향후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각오로 편성하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임위원장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거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 부분이 있을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위기상황에 처할 때일수록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안위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최고의 신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에 위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께서 병커에

들어가지고 병커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곡되거나 폄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도중에 최문순 위원, 전해숙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강 승 규	김 성 동	김 성 태	김 을 동
김 창 수	나 경 원	서 갑 원	이 경 재
이 균 현	이 병 석	이 용 경	장 병 완
전 혜 숙	정 병 국	정 장 선	조 순 형
진 성 호	천 정 배	최 문 순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사 덕		

○출장 위원(3인)

김 부겸 이철우 조진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최 민 수
전 문 위 원	임 중 호
입 법 심 의 관	서 도 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유 인 촌
체 육 국 장	김 기 흥
방 송 통 신 위 원 장	최 시 중
문 화 재 청 장	이 건 무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오 광 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 성 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 정 택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 의 석